

Giant, 석유 파이프라인 인수 추진

미국 뉴멕시코주 Jal 파이프라인 인수작업 ... 중국은 정제능력 확충

미국 PFC(Phoenix Fuel)의 모회사인 Giant Industries가 6월23일 Jal(New Mexico)의 가동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원유수송 파이프라인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iant는 파이프라인을 인수하면 하루 26만배럴의 원유를 정제하고 있는 Bloomfield 플랜트와 Ciniza 플랜트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에 연결해 사용할 예정이다.

Giant는 원유를 파이프를 통해 바로 정제 플랜트에 수송하면 한번에 많은 양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어 물류비 절감과 정제원유 공급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 인수가격에 대한 협상을 남겨놓고 있으나 2005년 3/4분기에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Giant의 파이프 인수계약이 체결되면 12-18개월 이내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계2위 석유 소비국인 중국도 Sinopec과 PetroChina 등이 지분참여를 통해 합작기업인 West Pacific Petrochemical을 설립하고 2007년 6월까지 10개의 정유 플랜트를 건설함으로써 하루에 33만배럴의 원유를 정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황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정제능력 부족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정환 기자>

<화학저널 2005/06/28>